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권명아

국문초록

식민지와 전쟁, 독재의 경험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수난자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물론 한국인=수난자라는 재현 체계에 역사적 진실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한국인이 수난 국가, 수난 민족이라기보다 가해 국가, 가해 민족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인 스스로 자신을 수난자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난자로서 자신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항 민족주의를 표방한 공격적인 내셔널리즘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민족 주체의 구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다른 유형의 주체 구성에 있어서도 반복될 수 있다. 여성주의 담론이 급부상하고 여성주의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역사 속에서 식재되고 은폐되고 부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주의적 지배 질서의 수난자, 피해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타당한 자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수난자라는 주체 구성의 방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설명되고 탐구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황순원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 수난사 이야기가 훼손된 민족의 역사를 수난사 이야기라는 특정한 재현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여성 수난

사 이야기가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과 여성의 수난이라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반영하는 측면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족주의 서사를 위한 여성성(여성적인 것)의 미적 동원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 특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분단 체제 하에서 민족 국가 구성의 과정이 여성성을 동원하는 정치적 형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침탈과 민족의 수난, 그 속에서 여성의 수난이라는 식의 가해, 피해의 직선 구조를 당연시여긴 채 민족/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의도하지 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해와 피해의 직선 구조, 특히 일방향적 직선 구조는 제국주의와 민족을 밖과 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도상으로 형상화하고 여성은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주체로서)민족의 바깥에 놓여진 제국에 의해 수난 받는 집단 주체성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주체성의 도상은 민족을 대 주체로 상정하고 여성을 민족에 의해 호명되어야 할 주체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근대 내셔널리즘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을 무반성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주요어: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 알레고리로서 여성, 훼손된 민족, 민족사의 수난사적 재현, 역사의 성화된 재현(erotized representation), 식민지 이후라는 멘탈리티, 상실의 존재론, 주체 구성, 여성성의 동원, 남성적 환상, 죄의식과 회색 제의, 기원적인 것의 창안, 공유 기억/기념물(commemoration)

1. 식민지 이후, 한국 전쟁, 역사의 수난사적 재현

식민지와 전쟁, 독재의 경험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수난자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물론 한국인=수난자라는 재현 체계에 역사적 진실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한국인이 수난 국가, 수난 민족이라기보다 가해 국가, 가해 민족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인 스스로 자신을 수난자의 이미지로 재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난자로서 자신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항 민족주의를 표방한 공격적인 내셔널리즘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민족 주체의 구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다른 유

형의 주체 구성에 있어서도 반복될 수 있다. 여성주의 담론이 급부상하고 여성주의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역사 속에서 삭제되고 은폐되고 부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주의적 지배 질서의 수난자, 피해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타당한 자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수난자라는 주체화가 구성되는 특정한 재현 체계는 여성을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서 배제해 온 근대 체제의 문법과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젠더 연구의 주요 과제로서 문학사를 재해석하고 재기술하고자 할 때 수난자로서의 여성 표상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곧바로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의 이중 침탈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특히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여성 수난사 이야기는 텍스트 표면에서는 제국주의→민족→여성이라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의 이중 억압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텍스트의 이면에서는 민족사라는 단일하고(unique) 총체적인 서사 구조를 위해 여성성(혹은 여성적인 것)을 동원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특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 체제는 각각의 '민족 국가'의 틀을 구성하고 민족/국가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 체제에서 민족/국가 정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지 이후라는 특정한 멘탈리티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식민지 이후라는 것은 식민지 경험과 뒤이은 전쟁과 분단의 경험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피해자로서의 자기 규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 피해자, 혹은 수난자로서의 자기 규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식민지 체험이라는 점이다. 즉 전쟁과 분단 이후 수난자, 피해자로서의 자기 규정은 언제나 식민지 경험을 호출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해방기, 한국 전쟁, 분단의 경험을

1) 이는 유태 민족이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멘탈리티를 통해 수난자로서의 자기 상을 강화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해 식민지 이후라는 특정한 멘털리티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인다.¹⁾ 이를 식민지 이후라는 특정한 멘털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분단 체제하에서 수난자로서, 피해자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분단 이후 남/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국가주의적 시스템 하에서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현 체제가 수난자 형상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역사를 수난사적으로 재현하고, 민족 정체성을 수난자로 재현하는 재현의 체계는 단지 역사적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단 체제하의 민족/국가의 정체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주체성의 정치학을 둘러싼 중요한 상징 체계와 재현 체제를 장악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침탈과 민족의 수난, 그 속에서 여성의 수난이라는 식의 가해, 피해의 직선 구조를 당연시여긴 채 민족/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의도하지 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해와 피해의 직선 구조, 특히 일방향적 직선 구조는 제국주의와 민족을 밖과 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도상으로 형상화하고 여성은 민족(이 때 민족은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주체로서 표상된다)의 바깥에 놓여진 제국에 의해 수난 받는 집단 주체성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형상화 구조는 제국→민족→여성이라는 식의 직선 구조 속에서 여성의 이중 억압 구조, 혹은 제국에 의한 여성의 이중 착취 구조라는 단순한 도식을 구성하게 된다. 또 이때 민족은 여성의 바깥이라기보다 여성을 내포하는 보다 상위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암암리에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식의 주체성의 도상과 위계 구조(hierarchy)는 민족을 대 주체로 상정하고 여성을 민족에 의해 호명되어져야 할 주체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근대 내셔널리즘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을 무반성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여성 수난사 이야기는 훼손된 민족의 역사를 수난사 이야기라는 특정한 재현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산출된다. 여성 수난사 이야기는 제국주의에 의

한 민족과 여성의 수난이라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반영하는 측면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족주의 서사를 위해 여성성(여성적인 것)을 미적으로 동원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그 특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분단 체제하에서 민족 국가 구성의 과정이 여성성을 동원하는 정치적 형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 수난사 이야기에 내포된 남성적 환상의 구조와 이러한 서사 구조가 재생산하는 민족 담론의 젠더 경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역사의 수난사적 재현과 수난자로서 여성 표상

—민족 알레고리로서 여성적인 것의 의미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존재론적 박탈감을 뿌리깊게 남겨놓았다. 전쟁 체험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 기반의 총체적 상실로 체험된다. 이러한 총체적 상실감은 존재의 보편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쟁의 체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는 혹은 아니었다는 집단적 자괴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을 소련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강대국의 이념의 대리 배설장”²⁾으로 바라보는 시대적 인식은 민족적, 국가적 주체성에 대한 급격한 훼손감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 주체성의 부재에 대한 인식은 전쟁을 “동족 상잔”으로 체험한 이들에게 매우 모순적인 자기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2) 선우 휘, 『깃발 없는 기수』, (1959), 『현대 한국 문학 전집』(신구문화사, 1981) 참조. 선우 휘는 『깃발 없는 기수』에서 해방기 정국을 “뒷간”에 쓰여진 낙서와 몸파는 여인들의 타락상을 통해 재현한다는 점에서 해방기, 한국 전쟁, 분단의 과정을 이념 대립의 산물로 그리면서 이념적인 것을 성애적으로 재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년 2월. 참조

3) 김병익, 「혼란과 허위—광기의 한 양상」, 『문학과지성』, 1978년 여름호 참조.

“이중의 천더기”⁴⁾ 의식이라 할만한 이중의 부재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국 전쟁의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들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엽전 의식”⁴⁾, “따라지 의식”, “천더기 의식”은 이러한 이중의 부재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표상이다. 이러한 의식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자기 동일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며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존재 근거를 구할 수 없다는 의식, 즉 존재론적 토대가 성립 불가능한 역사적 경험의 표현이다. 전쟁 체험은 이러한 이중의 부재감을 통해 전쟁 체험세대에게 뿌리깊은 상실의 존재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의 존재론은 한편으로는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어떠한 존재 기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과거에 대한 부정 의식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부정 의식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재생의 욕망을 구성한다. 1950년대 문단을 장식했던 전통 단절론과 계승론 사이의 논쟁⁵⁾은 실상 이러한 상실의 존재론의 두 층위(부정과 재생이라는)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체험을 통해 형성된 상실의 존재론은 한편으로는 “과거”를 급격하게 부정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원”을 창출해낸다. 즉 여기서 과거의 부정은 실은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는 과정의 한 측면일 뿐이다. 따라서 전쟁 체험과 이로 인한 상실의 존재론화로 구성되는 주체성의 양식은 지속적으로 “과거” 혹은 기원적인 것을 의문과 소환의 대상을 불러낸다.⁶⁾

여기서 전쟁 체험에서 형성되는 상실의 존재론에 의해 자기의 표상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강간당한 자로서

4) 엽전 의식이란 스스로를 세계 체제의 흐름에 무지한 채 영문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는 민족에 대한 자조적 감정을 내포한다. 이러한 의식은 최인훈의 소설에까지 이어지는 ‘민족 의식’의 일단이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 비평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참조.

6) 전쟁 체험에서 형성되는 아버 찾기 서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김윤식, 정호영 공저, 『한국 소설사』(예하, 1993) 중 「개별성의 일반화 公的인 父의 탐구」에서 볼 수 있다.

의 자의식이다. 전쟁을 경험하는 상이한 방식 속에 공통적으로 자리잡은 강간당한 자로서의 집단 무의식은 전쟁 체험 당사자들의 자기 의식을 강간자와 강간당한 자라는 성적인 의미 속에서 구성하게 만든다. 이때 현실을 성적인 의미 체계 속에서 전도하여 구성하는 방식에는 주로 이념적인 것을 성적인 의미로 전도하여 표상하는 작업, 즉 역사의 성화된 재현(eroticized representation) 방식이라는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특정한 메커니즘이 결부되는 것이다. 이로써 전쟁 체험에서 형성되는 자기 의식은 강간의 메타포를 따라서 신체의 표상 속에서 자기 개념을 표상하게 된다.

전쟁 경험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특정한 멘탈리티에 의해 여성(혹은 여성적인 것)은 훼손된 민족의 알레고리로 등장하며 여성 수난사 이야기는 민족 범주의 젠더화된 경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사 형식이라 할 것이다.

3. 여성 수난사 이야기와 남성적 환상(male fantasy)의 구조

해방 직후 발표된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1946)는 고편이라는 한 여성의 연대기를 통해 민족 수난사를 기술하고 있다.⁷⁾ 가난한 소작농의 딸인 고편의 인생 역정은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기에 이르는 한민족의 수난의 역정과 등가를 이룬다. 고편에서 삼월이로 다시 후꾸꼬로 이름이 바뀌며 살아가는 고편의 일생은 식민지 강점과 외세 강점에 이르는 근현대사의 상징적 등가물이다. 지주집 상일꾼으로 팔려가서 주인집 부자에게 차례로 겁탈을 당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편의 모습은 영문도 모른 채 ‘남에게 먹혀버린’ 식민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즐고,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와 「여성 수난사 이야기와 파시즘의 젠더 정치학」, 『문학 속의 파시즘』(삼인 출판사, 2001), 참조

지 수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직하리만치 순박하고 건강한 곰녀가 술집 작부로, '갈보'로 점점 더 전락해가는 과정은 '순박한' 백의 민족이 외세에 의해 더럽혀지는 과정으로 서사화된다. 특히 이는 기골이 장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리만치 건강하던 곰녀의 '육체'가 점점 더 썩어문드러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구체적 표현을 얻는다. 그리고 비록 몸은 지주에게, 일본인에게, 중국인에게 차례로 '점령' 당하여 썩어문드러졌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순박하고 맑은 곰녀의 표상은 역사적 수난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은 순수한 '민족'과 등치된다.

이와 같이 수난 받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과 민중의 수난사를 서사화하는 방식은 한국 현대 소설에서 이제는 매우 낯익은 문법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한국 현대사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리얼리즘적' 소설로 평가된다.(특히 황순원의 다른 작품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거나 개인의 내면 탐구에 몰두하는 모더니즘적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것과 달리 『별과 같이 살다』는 민중 수난의 근대사를 형상화한 예외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여성 표상을 통해 빼앗기고, 훼손되고, 상실된 민족을 상징적으로 서사화하는 방식은 (민중 수난사의 상징적 표현으로서)여성 수난사의 서사로 정착되는데 이러한 서사 방법의 정착을 통해 '여성적인 것'은 상실과 훼손의 의미로 고착되며 이러한 고착은 동시에 순수와 무구성에 대한 집요한 강박 관념을 낳는다. 즉 완전성/훼손, 무구/더럽혀짐, 이상적인 과거와 타락한 현실이라는 이분법적 세계 인식의 태도는 역사를 '수난사'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특정한 이야기 방법과 원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특정한 '환상 구조'를 산출한다.

이러한 남성적 환상의 형성은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산물이며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한국 현대 소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남성적 환상의 구조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특성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특히 현대 소설 속의 여성 표상은 식민지, 전쟁,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로 만드는 특정한 서사 방법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에서 보여지는 여성 표상의 성격은 오작녀라는 여성 인물의 수난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민족 비극’을 다루고 있는 『카인의 후예』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창녀’와 순결한 처녀, 헌신적 어머니라는 표상을 통해 민족사를 수난사로 기술하는 구조는 이후의 여러 소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황순원의 작품과 같이 여성들의 수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민족 수난사의 이야기는 특정한 역사의식과 현실 의식을 내포한다. 즉 ‘원래는’ 순수하고 우직하고 건강한 여인들이 외세에 의해 짓밟혀 훼손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구조는 현실을 총체적 파탄과 상실로 인식하는 태도의 소산이다. 또 여성 표상을 통해 각인 되는 상실 의식은 단지 수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하나의 존재론적 표지로 육화시키는 의미화 작용을 수행한다. 이렇게 ‘피맺힌’ 상실의 이야기와 수난의 이야기 속에는 ‘원래의’ 주체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강인한 것이라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피맺힌 상실에 대한 이야기는 순결한 기원을 생산하면서 타락한 현재를 치유하기 위한 순결한 기원에 대한 강박과 함께 순결한 주체에 대한 강박 또한 생산하게 된다. 또한 여성 수난사로 만들어지는 민족 수난사의 이야기 구조에서 훼손된 현재와 순결한 기원에 대한 복합적 감정이 주로 ‘창녀’의 표상을 통해 드러난다면 순결한 주체에 대한 강박은 주로 ‘어머니’(또는 어머니로서의 조국, 어머니로서의 국토, 어머니로서의 자연 등으로 확산되는)에 대한 욕망으로 드러난다.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역시 이러한 순결에 대한 강박 관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고에서는 주로 『카인의 후예』를 중심으로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민족 기원에 관한 복합 감정과 여성 수난사 이야기

— ‘자연(nature)’ 적인 것으로서의 여성 ‘신체’와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남성적 ‘신체’

해방기의 북한의 토지 개혁을 다루고 있는 『카인의 후예』(1954)는 카인의 상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한국 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의미화하는 작품이다. 『카인의 후예』는 이념 대립과 전쟁이 동족상잔이라는 친족에 대한 살해의 형식으로 경험되는 과정이 어떠한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작품은 매사에 무능력하고 나약한 지식인 박훈과 박훈을 곤경에 빠트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의 보호자이자 구원의 여인인 오작녀와 또다른 보호자인 오작녀의 동생 삼득이, 그리고 박훈 집안의 마름이었으나 토지개혁 바람이 불자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오작녀의 아버지 도섭 영감을 중심으로 두 집안 사이의 뒤얽힌 살육과 살해의 도가니를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토지개혁을 둘러싼 해방기 북한의 혼란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민중’의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 토지 개혁은 정신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극단적 단면으로 그려진다.

이런 일도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세상만사가 확 뒤집히는 판이로구나. 그래서 사람이란 죽는 날까지 어떻다고 말을 다 못한다는 거로구나. 어쨌든 난생 처음 보는 구경을 오늘 해본다.⁸⁾

토지 개혁의 외중에 오랜 동안 한 마을에서 살던 부재 지주 윤주사를 모른 척하고 처단하는 광경을 본 소작농 탄실이 아버지의 속내는 토지개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개털 오바”나 “공작대원”

8) 『카인의 후예』, 『별과 같이 살다』,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9. 중앙일보사, 1987, p.221.

처럼 타지 출신의 지도자들에 이끌려 몰려다니면서 ‘반동 지주’의 집에서 자신들이 쓸만한 물건들을 뒤로 몰래 챙기는 소작농들의 모습을 통해 작품은 해방기의 상황을 우매한 민중을 이용하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뭔지도 모르면서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자신들의 실속 차리기에 급급한 우매한 민중들이 벌이는 한편의 혼란으로 그려낸다. 작품에서 세태에 따라 급변하는 우매한 민중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도섭 영감이라면 “확 뒤집히는” 세상만사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작녀이다.

오작녀 아버지 도섭 영감은 20 여 년 동안이나 훈네 토지를 관리해 온 마름이었다. 그동안 웬만한 지주 못지 않게 잘 살아왔다. 그것이 요즈음 토지 개혁이란 걸 앞두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었다. 그제 오작녀에게는 못마땅했다.⁹⁾

작품은 토지 개혁의 와중에 반동 지주로 몰려 숙청의 위기에 처한 훈과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오작녀, 그리고 도섭 영감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그려진다. 이는 작품에서 훈과 오작녀가 사랑의 방해자인 ‘부정한 아버’ 도섭 영감과 갈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생을 훈 집안 덕에 잘 살다가 시대가 바뀌자 급변하는 도섭 영감이 토지 개혁으로 상징되는 “확 뒤집히는 세상만사” 속에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우매한 민중을 대변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훈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오작녀는 이 마을의 오랜 전설인 “큰 아기 바윗돌 빼꾸기”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도섭 영감이 변화하고 훼손된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오작녀는 변화하지 않는 근원적인 수호자의 의미를 담지한 ‘전설’과 동일시되는 인물이다. 작품에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미쳐 날뛰는 도섭 영감이 역사에 의해 훼손된 존재를 표상하고 있다면 훈과 오작녀, 삼득이의 관계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본연의 순진 무구한 세계로 그려진다. 도섭 영감이 부정한 아버

9)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145.

로 그려지는 것은 그가 과거와 급격하게 단절하고 과거를 망각한 채 현재에 편승하는 존재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섭 영감의 죄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훈의 할아버지의 송덕비를 때려부수고, 훈의 삼촌 용제 영감을 송덕비에 머리를 부딪쳐 죽게 만드는 에피소드들이다. 작품에서 송덕비를 때려부수는 도섭 영감의 행위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작품에서 토지 개혁으로 집약되는 해방기의 대립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한국 전쟁은 과거, 혹은 전통이라 할만한 것의 절멸로 그려지며 과거로부터 이어진 존재의 연속성의 절멸로 그려진다. ‘우매한 ‘민중의 잔악한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적 배경이 “비석거리”로 설정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작품에서 비석거리, 송덕비, 그리고 “무덤”(훈의 부모의 합장묘가 있는)은 이 ‘마을’의 공동체적 기억의 저장소이자 공동체적 기억을 통해 존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상상하는 기념물적 의미로 표상된다. 그리고 작품에서 훈, 오작녀, 삼득이로 이어지는 ‘순진 무구한’ 원래적인 공동체의 존재 의미는 이러한 기념물로서의 공유 기억(기념하기와 함께 기억하기의 이중적 의미로서 commemoration) 속에서 상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토지 개혁은 이러한 공유적 기억과 공유적 기억 속에서 충만한 동일성을 보증 받는 존재의 지속성이 절멸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라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큰 아기 바윗골의 전설과 동일시하는 오작녀의 정체성(identity) 변화는(“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오작녀는 자기가 큰아기 바윗골 전설에 나오는 큰아기와 같다고 생각했다.”¹⁰⁾ 현실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전설’ 속에서 새로운 상상적 아버지를 구축해 가는 전형적인 문법을 보여준다.¹¹⁾ 여기서 현실의 부정한 아버지를 대체

10) 『카인의 후에』, 앞의 책, p.276.

11) 이는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구조가 가족 로망스의 구조를 따라 개별 주체에서 민족, 여성의 자기 상을 구성해가며 이를 통해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산출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 로망스와 주체 구성의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 2001), 참조

하는 상상적 아버지는 “큰 아기 바윗골 전설”로 상징되는 오래된,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 전설은 단지 현실에서 지키지 못한 사랑을 바위가 되어서 지킨다라는 이야기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형식으로 드러난다. 큰 아기 바윗골은 오래도록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그 바윗골은 바로 훈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즉 작품에서 오작녀—큰 아기 바윗골의 전설—전설의 담지자인 자연적 실체로서 ‘큰 아기 바윗골’—훈의 선산, 훈 할아버지의 송덕비는 모두 현실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며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새겨져 있는 고유의 가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공유 기억/기념물을 통해 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동일성은 보존된다. 그리고 오작녀—전설—전설을 간직한 자연적 실체로서 ‘바위’—선산의 의미 사슬을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훼손된 현실의 부정한 아버지를 대체하는 상상적 아버지는 ‘전통’, ‘민족’의 의미로 수렴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현신적이고 순진 무구한 면모를 지키는 오작녀가 전설 속의 ‘큰 아기’와 동일시되고, 오작녀와 전설의 상징이 마을 뒷산의 ‘바위’라는 자연적 실체로 확산되면서 현실의 부정한 아버인 도섭 영감과 그가 대변하는 ‘토지 개혁’이라는 역사와 대립하는 상상적 아버지는 그 실체(육체)를 얻게 된다. 즉 토지 개혁과 도섭 영감으로 표상되는 훼손된 역사의 피바람에 대응하는 불변의 가치는 오작녀의 신체와 전설이라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전설을 담지한 자연적 실체로서 ‘바위’, 선산으로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육체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민족적인 것은 여성의 신체와 자연물의 표상, 그리고 ‘무덤’과 같은 기념물의 형식으로 그 상징물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여성의 신체가 민족적인 것의 표상으로 재현될 때 여성 신체는 자연적인 것의 영역과 동일시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때 남의 아내(“아랫도리는 남의 것”인)인 오작녀의 신체는 이념 갈등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영역을 상징한다. 즉 오작녀가 순수하고 본래적인 전통적 민족 가치의

표상이 되는 것은 오작녀의 신체에 각인된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삭제되고 정화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반은 남의 것이고 반은 혼의 것인 오작녀의 신체는 정치적 영역과 자연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이때 오작녀의 신체가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의 오염을 정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 그리고 여성적인 것의 '신체들'은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서 삭제되고 자연적인 것이라는 할당된 지역(계토)에 봉쇄된다.

5. 여성 신체에 대한 복합감정과 민족의 '경계'

—자연적인 것으로서의 여성 신체와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여성 신체의 분리와 갈등

오작녀의 신체가 원래의 민족과 훼손된 민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표상하면서 자연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 분열되는 면모는 작품 내적으로 오작녀에 대한 혼의 욕망의 분열과 억압에서도 반복된다. 오작녀에 대한 혼의 욕망이 모성성과 성적 욕망의 이중적 형식으로 분열되는 것과 모성성을 통해 성적 욕망이 억압되고 정화되는 방식은 자연적인 것의 의미를 통해 오작녀의 신체에 각인된 정치적인 것의 흔적이 정화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욕망과 억압의 구조를 따라 오작녀의 젓가슴=모성성=자연적인 것=원래의 민족이라는 하나의 의미 연쇄와 오작녀의 '아랫도리'=성적인 것=정치적인 것=훼손된 민족이라는 또한 축의 의미 연쇄가 생산된다.¹²⁾

이처럼 작품에서 오작녀는 도설 영감으로 상징되는 '부정한 아버지', 즉 토지 개혁과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그 산물로서 한국 전쟁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전설' 속에서 새로운 상상적 아버지를 구축하는 작품의 메커니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작품에서 부정한 아버지에 대항하는 오작녀

에 대한 작가의 가치부여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작품 내적으로는 오작녀를 향한 훈의 욕망은 매우 모순적이다. 작품에서 오작녀의 의미는 황순원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성성에 대한 희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된다.¹³⁾ 물론 작품에서 오작녀는 훈에게 지속적으로 어머니 품의 이미지와 결합된 의미로 나타난다.

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뒤였다. 어디선가 밤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설에 나오는 큰 아기바윗골 뻐꾸기가 생각이 났다. 무턱대고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러면 무서움은 사라지고 그대로 아늑해지는 것이었다.

지금 훈은 이 어릴 때에 어머니 품 속에서 맞본 자릿한 행복감을 되도록 오래 지속시켜 보려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잠 전에 꿈 속에서 자기가 어머니 아닌 오작녀에게 몸을 내맡기고 만족스럽던 일이 떠올라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고 말았다.¹⁴⁾

12) 여성 신체를 '아랫도리', 특히 자궁을 중심으로 동원하면서 민족의 알레고리로 표상하는 방식은 여성 수난사 이야기 구조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는 강간당한 자로서의 자기 의식(특히 민족 의식)이 더럽혀진 여성 신체를 미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재현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현 체계는 필연적으로 여성 신체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생산하며 민족의 신체를 더럽혀진 여성 신체로 표상함으로써 '민족/국가' 정화의 욕망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분단 이후 국가주의 정치학이 이러한 '신체' 정화 담론을 기조로 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 앞의 책 참조.

13) 박혜경은 황순원 작품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수용하면서 남편에게 젓가슴을 '허용'하지 않는 오작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오작녀의 사랑이 젓가슴의 사랑, 즉 모성적 사랑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설화성과 원시적 생명성, 모성성이 혼합되어 있는 오작녀의 사랑은 이 작품에서 폭압적인 시대적 현실과 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훈이 속해 있는 근대적인 자의식의 세계를 압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소명출판, 2001), p.157.

14)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150.

위 인용문은 오작녀를 모친과 동일시하는 전형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작녀와 모친과의 동일시는 혼에게 “자릿한 행복감”과 동시에 알지 못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즉 오작녀와 모친과의 동일시 과정은 오작녀의 헌신적인 사랑을 모성적 사랑으로 의미화하는 동시에 오작녀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작녀에 대한 욕망은 모성적 충일감과 성적 충일감에 대한 지향이라는 역설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이때 혼의 의식 속에서 오작녀가 ‘인정’ 되는 것은 모성적 충일감의 충족 대상으로서 일 때이다. 그러나 오작녀의 이미지는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혼의 보호자이자 구원의 여인인 모성적 충일감의 의미와 혼을 곤경에 빠트리는 ‘치명적인 여인’ (femme fatale, 이때 오작녀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다)의 양면적인 의미로 분열된다. 이는 사실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친과 동일시되는 오작녀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모친에 대한 욕망이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투영한다. 그러나 오작녀의 의미가 이처럼 모성적 충일감과 성적 충일감 사이의 갈등적인 관계 속에서 균열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 신체에 대한 모순적인 복합 감정과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오작녀는 모성적으로 현현할 때는 혼의 구원의 여인이 되지만 성적 의미로 현현할 때는 혼을 파단에 빠트리는 존재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혼에 대한 오작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조차 오작녀의 이미지는 다분히 성적인 상징과 결부된다는 점이다.

오작녀가 와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오작녀는 혼의 얼굴의 생채기를 빨기 시작했다. 목줄기의 생채기도 빨아 주었다. 손등이며 팔목의 생채기도 빨아주었다.

나중에는 혀로 핏기 시작했다. 이마며 어깨며 가슴이며 모조리 돌아가며 핏기 주는 것이었다.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오작녀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두었다. 그게 어쩐지 흐뭇하기까지 했다.¹⁵⁾

위 인용문은 훈의 꿈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훈의 상처를 빨아주고 훔아 주는 오작녀의 행위는 다분히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훈을 보호하는 오작녀의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 작가는 이러한 오작녀의 행위를 동물의 모성 본능에 가까운 '본능적인 모성'의 의미로 그려내려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오작녀의 헌신적 '모성'은 다분히 성적인 것이다. 꿈 속의 오작녀의 보살핌이 성적인 의미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현실 속에서의 오작녀의 보살핌은 다분히 모성적 의미로 그려진다. 이러한 오작녀에 대한 이중적 감정은 오작녀가 파국과 구원의 이중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허리 아래는 '남편의 것'이고 허리 위는 '훈의 것'인 오작녀의 신체의 의미 속에 노골적으로 담겨진다.

그저 그년이 이상한 버릇이 있어 뉘서요, 시집은 날부터 아예 허리 위루는 다 티디 못하게 하거든요. 허리밑 꼭 졸라매구서 아래보담두 더 소중한 니기디 앉았이요? 처음에는 그저 부끄러워 그르거니 했디요. 그르나 그렇디가 않아요. 언제 끼지나 젓가슴은 못 다티게 하는 거야요. 그래 본때가 글렀다구 손질을 가기 시작했디요. 그래도 영 말을 안 듣디 앉았이요? 그래 필시 이년이 나 말구 생각하는 판 사내놈이 있구나 하구, 그러믄 그놈하구 가 잘살라구 때레 내 쫓은 거야요…… 이르케 된 게디 내가 처음부터 그년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네다. 지금 와 생각하니 그 다른 남자가 바로 선생이었드군요?¹⁶⁾

어릴적부터 훈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오작녀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의 반을 '남의 것'으로 내준 존재

15) 『카인의 후에』, 앞의 책, pp.148~149.

16) 이러한 면모는 『별과 같이 살다』와 같은 작품에서 꿈녀를 다분히 '동물적인' 여성과 생명력의 소지자로 그리고 것파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는 황순원 작품에서 긍정적일 민중의 상이 이처럼 동물적인 생명력(이는 자연과 대지의 의미로 전이된다)의 의미로 드러나는 것파도 관련된다.

17) 『카인의 후에』, 앞의 책, p.185.

라는 점에서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그로 인한 남북 분단을 온 몸으로 체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오작녀에 대한 혼의 이중의 욕망, 즉 성적 충일감과 모성적 충일감 사이의 갈등은 오작녀가 파국과 구원, 그리고 남의 것이 됨으로서 받은 훼손된 존재이지만 받은 '무구함'을 간직한 존재라는 '신체'에 대한 복합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다. 즉 오작녀에 대한 혼의 복합적인 욕망은 오작녀의 신체가 곧 국토/민족으로 상상되는 과정의 무의식적인 산물인 것이다.

오작녀를 성적 욕망의 대상을 상상할 때 혼은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이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오작녀란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 '훼손된 것'의 의미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오작녀는 훼손된 민족, 국토의 의미와 등가를 이룬다. 작품에서 혼에 대한 오작녀의 사랑이 현신적인 모성과 의식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이때만이 오작녀는 '순수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작녀의 순수성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은 나머지 반쪽의 신체를 통해 표상된다. 즉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오작녀가 혼에게 죄의식을 유발하는 것은 황순원 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결벽 의식¹⁸⁾과 관련된 점도 있지만 오히려 현실의 훼손된 민족과 그 훼손을 정화하고 새롭게 거듭날 새로운 '민족'에 대한 복합 감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작녀에 대한 죄의식과 욕망의 복합감정은 현실의 '민족'을 더럽혀지고 훼손된 신체로 상상하면서 그 죄의 신체를 정화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날 '무구의' 신체로서 민족을 상상하는 복합감정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큰아기 바윗골의 전설과 전설의 담지자인 자연물로서의 바위, 그리고 그러한 공유 기억의 저장소인 '송덕비'와 선산으로 이어지고 확산되는 오작녀의 상징은 오작녀에 투영된 복합 감정과 결부된다. 즉 오작녀가 전설과 자연, 그리고 기념물의 상징을 통해 (원래의)민족적인 것의 표상으로 생산되는 것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더럽혀진 신체의 담지자로서 오작녀가 아니라

18) 박혜경, 앞의 글 참조.

반쪽의 ‘무구한’ 신체, 헌신적 모성과 동일시되는 오작녀이다. 즉 오작녀의 의미가 (원래의)민족적인 것의 의미로 표상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신성한 아비로서의 민족/전설과 부정한 아비로서의 현실/역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손상되지 않은 반 쪽의 신체(젓가슴으로 표상되는)를 ‘전설’, ‘자연’, ‘기념물’ 과 같은 공유 기억의 창안을 통해 온전한 신체로 재생해내려는 심리적 보상기제의 일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설, 자연, 기념물은 오작녀의 더럽혀진 반 쪽 신체(“아랫도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생산의 담지자가 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쟁 체험을 반영한 소설들이 공통적으로 여성 신체를 강간의 상징 속에서 상상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불모의 땅으로 의미화하고 이러한 여성 신체의 이미지 속에서 민족을 상상함으로써 민족적인 것을 불모의 땅, 불임의 땅으로 상상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자궁이 더럽혀진 여성 신체로 상상되는 현실의 민족을 매장하고 이를 통해 거듭 난 새로운 ‘민족’은 불임의 자궁을 대신하여 새로운 민족을 생산하는 것이다. 『카인의 후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설, 자연/대지, 기념물들이 더럽혀진 현실의 민족의 신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민족의 신체’를 생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다.

6. 여성 신체로 재현된 민족 ‘신체’의 히스테리적 구조

—민족 신체의 지속성 창안을 위한 희생 제의

『카인의 후예』는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한국 전쟁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 대한 복합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전쟁은 이들에게 친족 살해에 대한 공포와 친족을 살해하려는 욕망이 어지럽게 뒤섞인 말 그대로 증오와 공포의 도가니로 체험된다. 작품에서 이념적인 대립 속에서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가는 집단적 광기의 메커니즘은 피와 살에 대한 복합 감정 속에 투영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여성 신체에 대한 복합감정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오작녀의 신체가 더럽혀진 민족과 무구한 기원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양분된 복합 감정을 투영하는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작품에서 민족은 신체의 이미지를 통해 대지, 자연과 같은 '변화하지 않는 것'의 의미로 상상된다. 이는 해방기의 토지 개혁을 신체의 분할로, 전쟁을 혈육간의 동족 상잔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훈은 훈대로 윤주사의 흥분과는 달리 가슴을 꿰게 하는 게 있었다. 그것은 아직 나라도 서기 전에 토지 개혁을 한다는 건 민족을 분열시키는 시초라는 점이었다.¹⁹⁾

“넌 농민대회를 한는데, 그 자리에서 토지개혁인걸 한대데.”

“예……”

“어뜨게 되는 놈의 세상이다……”

이미 예기하고 있던 일이었다. 그러나 한 순간 훈의 가슴을 무엇인가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 놓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또 그대로 그를 싸고 있는 공간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기도 했다.²⁰⁾

작품에서 해방기 북한의 토지 개혁은 민족 분열의 시초로서 의미화 된다. 그리고 민족 분열의 시초로서 토지 개혁은 훈의 “가슴을 무엇인가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 놓는 것”이자 “그를 싸고 있는 공간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 이는 토지 개혁을 민족 분열로, 또 민족 분열을 신체의 분열로 의미화하면서 통합적인 것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상징을 ‘토지’와 ‘신체’의 의미 속에서 상상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처럼 신체와 민족, 토지의 분열로 표상되는 현실의 훼손에 대비되는 것은 혈연적 지속성의 ‘대지적’이고 자연적인 상징물로서 의미화되는 선산이다. 여기서 훈의 선산

19)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180.

20)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197.

은 한편으로는 토지 개혁으로 대표되는 민족 분열의 와중에서 몰락하고 사라진 통합성의 세계이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실된 충만한 존재를 회복시켜 줄 기원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훼손된 존재가 자신의 충만한 자기 동일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분열된 민족이 다시 통합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이러한 기원을 회복하는 재생의 제의를 통해서이다.

훈이 끼고 온 토지문서 뭉텅이를 상석 위에 올려 놓았다. 노끈을 풀고, 성냥을 그어 댔다. 메마른 종이 귀퉁이에 필락하고 불꽃이 오르더니, 금새 파야란 연기만을 남기고 꺼지고 말았다. 종잇장들이 너무 뻑뻑하게 겹쌓인 때문인 것 같았다.(중략) 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왔다. 그걸로 상석 앞을 파고 인감도장을 문었다. 무슨 화장하고 난 뺨조각이나 문듯이.²¹⁾

부모의 합장 묘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 태우고 인감 도장을 “무슨 화장하고 난 뺨조각이나 문듯이” 매장하는 훈의 행위는 토지 개혁이라는 현실의 부정함 흐름 속에서 손상되고 몰락한 자신의 존재를 매장하는 제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장의 제의는 한편으로는 분열된 민족, 분열된 신체로 표상되는 현실의 훼손과 대조되는 피와 살의 연속성, 시간과 공간의 지속성을 산출하려는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 조상의 무덤인 선산이란 인간 육체를 소멸시키는 시·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멸된 육체를 대신하여 피와 살의 지속성을 재현하는 ‘기념물’인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훈이 부모의 무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인감 도장을 매장하는 제의는 훼손된 신체를 소멸(매장)시킴으로써 그러한 제의의 과정을 통해 피와 살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생산해내려는 일종의 재생의 제의를 의미한다.

즉 훈은 토지 문서를 “공작 대원”들에게 넘기는 대신 부모의 무덤에 매장함으로써 신체-토지-민족의 동일성과 통합성을 재생시키려는 제의를 수행

21) 『카인의 후에』, 앞의 책, pp.199~200.

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한국 전쟁의 의미가 피와 살의 '분열'로 표상되는 방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즉 『카인의 후예』에서 피와 살(신체)은 분열과 통합, 죄와 정화의 이중적인 복합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 표상이다. 이는 전쟁에 대한 복합 감정과 민족에 대한 복합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 달려가 오작녀의 가슴을 안았다. 오작녀,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오. 당신의 그 건강한 핏속에 내 씨를 뿌리고 싶소. 거기에 내 응졸한 피를 씻고 싶소!

그런데 혼이 지금 안고 있는 건 오작녀가 아니라 실은 오작녀의 아버지인 것이었다. 금방 단도로 가슴을 찌른 참이었다. 면바로 심장을 찔렀다. 피가 막 쏟아져 나왔다. 이 피는 도섭 영감의 가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심장에서도 나오는 것이었다. 온몸이 혼건히 적셔졌다. 그렇지만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흐를 대로 흘러라. 흐를 대로 흘러라! (중략)

어느새 혼은 핏속에 몸이 잠겨 있었다. 둘러보니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다. 해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몸이 자꾸 피바다 속으로 깊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었다. 피겨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치는 곳까지 이르렀다. 거기 휩쓸려들면 영락없이 죽는 수밖에 없었다.²²⁾

위 인용문에서 오작녀의 “건강한 핏 속에 내 씨를 뿌리고 싶”다는 혼의 소망은 훼손된 현실 속에서 상실된 자신을 복원하려는 재생의 의미를 투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은 건강한 피와 건강한 씨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신체’를 생산하려는 욕망이자 동시에 오작녀의 “건강한 피”속에서 “내 응졸한 피를 씻”어 내는 정화의 제의를 상징한다. 이 때 피의 의미는 현실에서 훼손된 주체(들)의 더럽혀진 신체를 정화하고 신체의 분할을 통합하

22) 『카인의 후예』, 앞의 책, p.270.

는 지속과 통합의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재생과 정화 제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주체(민족)가 건강한 피와 씨의 결합인 새로운 무구의 신체로 상상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러한 민족의 상상태가 소위 혈연적 공동체이자 자연적 공동체로서 상상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피와 살은 재생과 정화를 통해 통합성과 지속성을 생산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피와 살을 통해 혈연적·자연적 통합성으로서의 새로운 주체를 상상하는 방식은 바로 피를 죄의 상징으로 상상하는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인용문은 도섭 영감을 죽이기로 작정한 훈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구절로서 도섭 영감을 죽이려는 살해 욕망이 피와 살을 통한 정화와 재생의 제의와 강박적으로 결부되는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해방기의 이념 대립과 전쟁을 '근친'(친족)에 대한 살해와 살육의 복합 감정 속에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정립하는 주체성의 형식을 투영하는 것이다. 즉 오작녀의 "건강한 피"를 통해 자신의 죄의식을 정화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훈의 무의식적 욕망은 한편으로는 무구의 통합적 신체라는 표상을 통해 '새로운' 주체(민족)를 상상하고 그러한 새로운 주체를 '피와 살'의 지속성과 통합성 속에서 상상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재생에 대한 욕망은 피와 살에 대한 강박 관념의 산물인 것이다. 즉 『카인의 후예』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연적 지속성과 핏줄의 동일성, 자연적이고 '대지적'인 지속성과 통합성, 혹은 '무덤'과 '송덕비'과 '선산'과 같은 기념물과 공유 기억의 형식을 통해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이 한국 전쟁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근친 살해에 대한 욕망과 공포로 체험된 전쟁은 피와 살, 그리고 여성 신체에 대한 기이한 복합 감정을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복합 감정은 끝없이 죄의식과 희생양에 대한 요구, 정화와 재생에 대한 강박 관념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 형성된 주체성의 신경증적 양태와 노이로제, 터부 의식을 상상적으로 '치유'하려는 욕망이 '민족', '전통', '공유 기

역'에 대한 지속적인 욕망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와 살의 지속성과 신체적 표상을 통해 상상되는 민족, 전통, 공유 기억에 대한 욕망은 죄의식과 강박 관념, 터부 금지 명령에 사로잡힌 현실의 주체성을 가리고 상상적인 주체성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 할 것이다.

7. 여성 수난사 이야기 구조와 주체 구성의 정치학

— 기원적인 것에 대한 복합 감정과 새로운 '역사'와 전통의 창안

전쟁 체험에서 비롯된 상실의 존재론은 과거를 상실로 표상함으로써 부정하고 '전후'의 현실을 “이어받고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출발²³⁾로 간주한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와 그 산물들을 “매장”하고 “더러운” 과거에 얽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재생에 대한 강박증으로 나타난다.²⁴⁾ 이러한 매장과 재생의 메커니즘은 서사의 측면에서는 과거를 서사화하는 특정한 문법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쟁 체험을 다룬 소설들은 전쟁 체험의 서사화로부터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로 나아간다. 이는 한편으로는 과거를 매장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를 통해 새로운 재생을 시도하려는 욕망 사이의 길항 관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는 망각과 기억

23) 이런 태도는 소설 뿐 아니라 당대 문학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윤식과 정호웅은 전후 비평의 성격을 화전민 의식, 실존 의식, 전근대 의식의 세 측면으로 구별하여 분석하면서 이러한 비평적 태도가 공통적으로 “초토 위에 혼자 섰기에 혼자 힘으로 앞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赤子의식’ 이기도” 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전후 현실을 “모든 것이 가능한 여백이며 따라서 창조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인 “폐허”로 표상하는 고석규의 비평이나 “근대주의에 대한 불신과 저주, 그리고 공포가 만들어낸 의식”으로 “근대주의에 의해 초토화된 전후 현실”에 대항하여 토속어의 세계를 증시하는 유종호의 비평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라고 평가한다. 김윤식, 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예하, 1993), pp.344~345.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줄고, 『한국 전쟁과 주체성의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참조.

사이의 미묘한 운동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과거적인 것을 매장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과거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전쟁 체험에서 비롯되는 주체성의 형식은 서로 상이한 특질을 보여주지만 그 기저를 흐르는 주요한 공통점 중의 하나는 과거에 대한 특별한 자각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자각은 현재에 대한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데 전쟁 체험은 현재, 혹은 현재의 주체성의 형식을 손상되고 훼손된 것으로 여김으로써 현존하는 손상된 존재의 기원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현존의 훼손된 주체성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의 주체성의 역사적 형식을 탐색하는 성장 서사나 자서전적 서사에서 과거, 혹은 존재의 기원에 대한 탐색은 주로 아버지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과거적 주체성의 담지자에 대한 대면 의식으로 드러난다. 즉 여기서 아버지와 대면하는 과정은 과거와, 혹은 존재의 기원과 대면함으로써 현존의 주체성의 훼손된 형식을 고찰하려는 일종의 정체성 탐색의 서사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개별 존재의 주체성의 형식에 대한 탐색이 민족이라는 집단적 주체성의 형식에 대한 탐색으로 확산되는 경우 이러한 시위, 혹은 과거에 대한 탐색은 민족사에 대한 재정립, 전통에 대한 새로운 모색 등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가족사 소설의 형식이나 민족 수난사에 대한 탐색과 같은 소설적 형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설 형식들은 과거와 존재의 기원에 대한 탐색을 통해 부정될 과거와 계승될 과거라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생산하고 이렇게 교정된 과거에 대한 표상(revision of the past)을 통해 과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하게 된다. 즉 전쟁 경험을 통해 현존하는 주체성의 형식을 상실의 존재론으로 구성하는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과거를 교정하고 교정된 과거를 통해 주체의 '신기원'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하려는 욕망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 경험에서 비롯되는 주체성의 형식은 과거와 역사에 대한 특정한 재현 방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념과 이상형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주체성의 모델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내포하게 된다. 문학적 재현을 통해 과거에 대한 부정이나 전통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는 작업들은 단지 반근대적이거나 회고적인 지향의 산물이라기보다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교정이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쟁 경험을 형상화하는 소설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소위 샤머니즘적 제의, 전통에 대한 집착, 고향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은 전쟁 이후 근대화 과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과거를 교정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의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쟁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제사 의식이나 선산에 대한 향수, 죽음과 관련된 무속적 제의 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들은 근대적인 전쟁 체험의 결과 근대적 세계에 대한 반발의 형식으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은 죽은 자, 혹은 죽은 것들을 매장하거나 반대로 기념함으로써 과거를 교정하려는 방식의 상반된 측면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죽은 자, 혹은 죽은 것들을 기리거나 매장하는 모순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제의적 표상들은 과거와 현재를 상상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특정한 이념형과 이상적 모델을 구축하는 역사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특히 소설 형식에 있어서 이러한 과거에 대한 교정의 작업은 기억의 서사라는 소설 형식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체험 소설들을 기억의 서사이자 공유 기억의 창안장으로 형성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서사가 주체의 연속성을 생산하는 존재론적 장이 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적인 것이라는 제한된 범주보다 '서사'라는 보다 광범위한 범주가 존재의 의미와 기원을 형성하는 존재론적 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분단 체제하의 한국 소설사에서 미적인 것, 혹은 '문학적인 것' 속에서 존재의 근원을 형성하려는 심미적 존재론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상 이와 같이 서사가 존재 현현의 장이자 주체

형성의 장이 되는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를 교정함으로써 서사를 통해 주체를 새롭게 생산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소설에서 전통, 민족, 역사가 지니는 의미가 주체성의 서사의 맥락에서 재평가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참고문헌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박혜경,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소명출판사, 2001.
- 선우 휘, 『깃발 없는 기수』, 『현대 한국 문학 전집』, 신구문화사, 1981.
- 송하춘, 이남호 편, 『1959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 정희모, 『한국 전후 장편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 비평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황순원, 『카인의 후예』, 중앙일보사, 1987.
- Andrew Hewitt, *Fascist Modern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Gretchen E. Wiesehan, *A Dubious Heritage*, PETER LANG(New York: 1997).
- Herold B Segel, *Body Ascendan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London: 1988).
- Janet L Beizer, *Family Plot*, Yale University Press, 1986.
- John R. Gills Edit,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Princeton, New Jersey, 1994).
- Klaus Theweleit, *Male Fantasie*, university of menesota press, 1987.
- Laura Catheline Frost, *Fascism and Fantasy i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Colombia University Press(PHD), 1998.

Abstract

The History of decayed female body

—Invention of Nation state and mobilizing the femininity

Kwon, Myeong-Ah

This dissertation examines novels reflecting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with a view to defining the historical forms of subjectivity which emerged as a result of the experience of war. As long as the regime of division remains, the Korean War could be said to constitute the existential basis which effects the lives of all Koreans in some way. Yet the Korean War does not hold the same meaning for all people; rather the meaning of the war is intimately related to individual positionalities.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se individual positions towards the war, we can make some suppositions about position and status within the division regime, and about the world and historical views held by people.

This dissertation pursues the traces the Korean War left among Korean people through an examination of literary texts, and aims not merely to reconsider the suffering, regret and tragic wounds which the war left behind, but to question whether Koreans have really freed themselves from the wounds and traces of war. We have no choice but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Korean War if we are to ask questions of our own identity.

Through examines the works of Hwang Sunweon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y reveal the typical structure through which the consciousness of suffering produced by the war experience expands from the concept of the self to a concept of the race-nation (minjok). In addition, Hwang Sunweon reveal the meaning the war may have for writers who fled to the south from the north. Hwang Sunweon and the writers who fled to the south from the north understand the war and division as an experience of suffering based on a consciousness of the loss of the homeland, and in both of their works this consciousness develops into a yearning for roots.

One historical characteristic of subjectivity constituted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is how it uses the field of literature as a substitute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war and to isolate the memory of the dead (or of death) which threatens those who survive, and also enacts a kind of ritual of rebirth which purifies the self that has been negated (through an ambivalent process of memory and burial).